

은성수 “금융혁신에 방점” 인터넷銀 재추진 등 과제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위 은성수號 출범 초읽기

제3인터넷전문은행 재추진 작업 데이터경제3법·핀테크 관련 법안 “자세하게 파악 후 입장 정할 것”

차기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내정됐다. 은 후보자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과의 수출규제로 변동성이 커진 시장을 안정시킨 후 금융혁신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 후보자가 이끄는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출범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출근해 금융위 관련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업무보고는 주말이 지난 후부터 진행될 예정”이라며 “각국의 업무보고를 통해 금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 서고 있다. /연합뉴스

융위 현안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정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은 후보자의 정책 입장이 기존 금융위 정책 방향과 다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와대가 은 후보자를 선임한 이유 중 하나가 국내 금융시장·산업에 대한 안정적 관리, 금

융혁신 가속화, 금융산업 선진화,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이기 때문.

은 후보자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은 소비자, 금융산업, 금융시스템 등 3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금융산업 발전에도 혁신이 필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방점을 금융혁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의 긴급 상황만 해결되면 기준과 다름없이 금융혁신에 무게를 두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금융위는 4차 산업혁명에 맞아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혁신금융 샌드박스 제도 도입, 전자금융업 체계 개편,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P2P(개인간) 대출 법제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오는 10월 진행될 제3인터넷전문은행 재추진 작업은 은 후보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

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신청했지만 혁신성과 자본조달능력 미흡 판정을 받아 한차례 무산됐기 때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재추진의사를 밝혔음에도 네이버·넥슨·엔에이치엔(NHN)엔터테인먼트 등 자본력 있는 정보기술 기업들은 진출 할 뜻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고 탈락한 기업들도 재도전이 쉽지 않다고 회의적인 입장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미흡한 부분이 한 번에 보완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재도전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에 발목 잡힌 데이터경제3법과 P2P금융, 핀테크 관련 법안도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1~2년째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면서 금융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핀테크 기업의 혁신서비스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와 산업간

융합을 통한 새로운 혁신서비스개발이 가능해진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P2P금융협회 측은 “국내의 제도가 전통적인 금융규제 방법으로 핀테크 기업을 옴아내고 있다”며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은 후보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정부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28일 이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은 후보자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군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재정부 국제기구과장, 금융협력과장,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 세계은행(WB) 상임이사,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국내외 금융 분야의 요직을 지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융권 ‘애국 마케팅’ 활발

우리은행 연 1.7% 정기예금 특판
신협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출시
KB국민은행 3·1독립선언광장 준공
KEB하나은행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OK저축은행 ‘대박통장815’ 특판

한·일 갈등이 연일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8·15 광복절을 앞두고 ‘애국 마케팅’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8일 광복 74주년을 기념해 6개월 만기 ‘우리 특판 정기예금’을 내놓았다. 만기 해지 시 최고 연 1.7%의 금리가 제공된다.

제2금융권 중에서는 OK저축은행이 오는 16일까지 금리 1.815%의 자유입출금예금 ‘OK대박통장815’ 특판을 진행한다.

신협은 타 금융사로부터 3개월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서민·자영업자·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상품(‘신협 815 해방 대출’)을 선보였다. 고금리 대출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3.1~8.15% 이내의 금리로 전

환해주거나 신규 대출을 해준다.

독립운동가와 장소에 대한 기념사업도 활발하다.

KB국민은행은 서울시와 함께 인사동 태화관터에 ‘3·1 독립선언광장’을 조성하고 광복절에 맞춰 준공식을 진행한다. KB국민은행은 이 광장 조성에 1억원을 후원한 바 있다.

KEB하나은행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나라사랑 캠페인 동영상 ‘하나되어 외쳐봐, 대한민국 위아(WE ARE) 100’에 ‘좋아요’를 클릭하는 수만명 500원이 기부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모은 기부금을 독립유공자 후손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신한금융그룹 산하 신한희망재단은 서울 종로구 익선동 한옥거리에 음식점 ‘독립료리집’을 조성하고, 100년 전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 시절 먹었던 음식을 재현해 방문객에게 판매했다. 지난 6월부터 한달간 운영된 독립료리집은 평일 평균 190명, 주말 평균 250명 등 총 6000여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홍민영 기자 hong93@

IBK기업은행 디지털플랫폼 ‘BOX’ 가입자 1만 돌파

중소기업 경영활동 전반 지원



지난 1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창립 58주년 기념식에서 김도진 행장(가운데)과 직원들이 BOX 플랫폼 오픈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11일 국내 최초로 선보인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BOX(박스)’ 가입자가 1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출시 후 9일 만이다.

BOX는 ‘기업 경영지원 전문가(Business Operation eXpert)’라는 의미로, 생산·자금·인력·재무·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비대면 대출 지원 ▲정책자금맞춤 추천 ▲생산자네트워크 지원 ▲해외 바이어 매칭 ▲기업 부동산 매매 중개 등

총 12개의 개별 BOX를 통해 금융·비금융 지원 솔루션을 제공한다.

/나유리 기자



한화생명 스페셜통합종신보험 무배당 [저해지환급형]

- ☑ 상황에 따라 자금활용이 자유로운가? **중도인출, 연금지급을 위한 다양한 옵션!**
- ☑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합리적인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저해지환급형이니까!**

저해지환급형이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상품입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중도인출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연금선지급서비스 신청은 조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약관 및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hanwhalife.com

상담문의 080-365-6363
생명보험협회심의회 제 2019-01345호(2019.04.09) 준법감사인확인필 CS19-05-30

